

레이건美國大統領의 大韓民國 國會연설

—1983년 11월 12일—

蔡議長님 尹副議長님 高副議長님!

고명하신 議員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본인에 앞서 「아이젠하워」大統領과 「존슨」大統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議會를 찾아 왔습니다. 또 본인은 그 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大韓民國과 그 국민들에 대한 美國의 지지와 友誼를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韓半島에서 전쟁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여러분의 大統領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그 분을 위한 만찬회에서 韓國 국민의 용기와 底力과 희생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韓國 國民이 北韓에 의해서 노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韓國 국민과 合勢하게 된 것을 美國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답하여 여러분의 初代大統領은 美國이 해 준 일에 대해서 韓國의 심심한 謝意를 표명했습니다…… 그 분은, “나의 친구 여러분… 본인이 몇백년을 산다 해도 우리는 여러분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본인은 그 빛은 이미 오래 전에 다 잦아졌음을 이 위대한 나라의 국민에게 말하기 위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의 信義, 여러분의 友情, 여러분이 이룩한 발전, 여러분의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보다 좋은 것을 건설하겠다는 여러분의 決意가 바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몇번이고 증명해 준 셈입니다.

이 격동과 試鍊의 시기에 美國 국민은 그러한

변함없고 헌신적인 盟邦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美國이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兩國은 오랜 友邦입니다. 지금부터 百餘年前 美國의 배가 처음으로 韓國에 접근했을 당시에는 우리 兩國 국민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美國의 使節에 대한 朝鮮王國의 첫 인사말은 환영과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美國인에 대한 그 첫 인사말은 韓國 국민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일부분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시오? 수만리 만경창과 旅路에 편안들 하시오? 商品을 교환할 계획이시오?…… 아니면 이 곳을 지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故國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근본은 같건만 衣冠이 매우 다르고 言語 또한 같지 않소이다. 하나 모두들 서로 友情으로 대할 수 있소. 그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오……”

이제는 美國으로부터의 旅路가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旅路를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돕는 행동규범은 1世紀餘前 아니 심지어 古代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지친 나그네는 기운을 회복시켜 주고, 병든 나그네는 낫게 해주고 길을 잃은 나그네는 보호했다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大陸의 文明國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古來로부터의 고귀한 관습도 최근에는 어떤 나그네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오늘날의 우리 世界는 더욱 슬픈 世界가 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民間航空機에 도움을 주는 대신 蘇聯은 이를 공격했습니다. 弔慰를 포하는 대신 蘇聯은 이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안심을 시키는 대신 蘇聯은 위협을 되풀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死亡者 수색에 있어서도 蘇聯은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온 세계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韓·美 兩國 국민은 남다른 슬픔과 분노를 같이 했습니다. 美國 국민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릴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그 사랑하는 이를 잃은 韓國人 가족들을 위해서도 올려졌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 때 幽冥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드리도록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이 묵념을 여러분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최근 數週 동안에 우리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랭군」에서의 비루한 北韓의 공격은 우리의 신뢰하는 조연자와 친구들을 앗아갔습니다. 그 때 사망한 분들 중의 많은 분들이 美國에서 우리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그들의 助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을 때에 美國에는 그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본인 자신도 바로 몇달전에 「워싱턴」에서 만났던 李外務長官의 지혜롭고 의연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때 우리가 잃었던 모든 분들의 가족과 국민들에 대하여 美國은 깊은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또한 北韓의 무지몽매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政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 政府들과 힘을 합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侵略者는 누구나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韓·美 두 나라 국민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自由人은 노예가 되지 않으며 自由는 大韓民國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美國의 우리들도 최근 數週 동안에 그와 비슷

한 야만스러운 「테러」를 당했습니다. 「레비논」에 가 있던 우리 海兵隊들이 理性이나 品位같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狂人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단 平和뿐 아니라 平和를 탐색하는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키려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실의 고통을 참고 있듯, 우리도 우리의 손실의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나누듯 슬픔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兩國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러한 悲劇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런 증오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손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友邦과 盟邦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제반 원칙들을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 밝은 미래 등 그들이 상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韓國이 이룩한 발전만큼 잘 例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韓國은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본인이 이 곳에 옴으로써 해서 南韓의 여러분과 北韓의 경제적 실패 사이의 큰 對照에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2次大戰 직후 數年 동안만 해도 韓國 그리고 아시아 全域의 미래는 매우 암담했었습니다. 韓國을 비롯한 기타 新生國家들은 번영과 자유를 희망했지만 戰爭과 빈곤과 植民統治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서 ‘이 지역의 미래는 民主的일 것인가, 아니면 全體主義的일 것인가?’라는 우리 時代의 큰 「이데올로기」문제가 들러 왔습니다. 그 당시 共產主義는 급속한 工業化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역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非現實的이고 당지도 않는 사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美國 국민과 韓國 국민

은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이와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北韓은 이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일념으로 남침해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세계는 전쟁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美國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침략으로부터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달려 왔습니다. 그리하여 5萬4,000餘名の 美國人이 자유를 지키다가 散華했습니다.

이것은 큰 代價였습니다만, 韓國 국민은 이보다 더한 代價를 치루었습니다. 民間人 사망자數는 수십萬名을 헤아렸습니다.

「존슨」大統領은 바로 이 國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애들이 굶어 죽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南으로 가는 道路沿邊의 이름없는 무덤 속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이 묻혀 있는지? 北으로부터의 침공을 받아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韓國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1951年 韓國戰爭이 한창일 때에 「다글러스 맥아더」將軍은 美國議會 上下 兩院合同會議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분은 韓國人에 대해서 말하기를 “韓國 국민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는 이루 筆舌로 形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아더」將軍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議會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국민들에 대한 박수 갈채로 그 분이 말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戰爭이 끝난 뒤에도 韓國 국민은 바로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韓國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都市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집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수백萬名이었으며 工場은 돌아가지 않거나 파괴되어 있었고, 굶주린 사람이 많았고, 交通網은 절단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재난으로 해서 經濟는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韓國 국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市·邑, 여러분의 事業體, 여러분의 나라를 再建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는 韓國의 經濟奇蹟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음

니다. 韓國經濟의 발전은 거의 前例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의 知性과 精力 밖에는 천연자원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한 世代?동안에 이 나라를 전쟁의 황폐로부터 완전 개발의 문턱으로까지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國民 個人所得은 1961年の 約 80「달러」로부터 오늘날의 1,7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韓國은 工業國, 주요한 貿易國 그리고 온 세계 開發途上國의 經濟的 모범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국제사회의 존경을 더욱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86年の 아시안 게임과 1988年の 「올림픽」을 포함한 많은 국제적 행사들의 주최국으로서의 貴國의 역할의 확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거듭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들의 비전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北韓은 地上에서 최악의 抑壓的인 社會 중의 하나입니다. 北韓은 번영을 외면한 채 軍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貴國의 급속한 발전과 北韓의 침체는 자유경제체제의 가치를 아마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이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38線 양쪽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본 후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北쪽에서는 자기들이 未來의 潮流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방벽과 군대와 총탄으로 自國民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까? 歷史의 潮流는 自由의 물결이며 共產主義는 이 물결을 감히 막으려 들 수도 없고 막지도 못할겁니다.

美國은 여러분들의 業績을 잘 알고 있습니다. 動亂後 25年 동안 美國은 경제 원조로 근 55億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그같은 액수는 6個月間의 우리 兩國間 貿易高—상호간 거의 均衡을 이루고 있는 貿易高—에도 미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韓國에 대한 최대의 시장임과 동시에 또한 최대의 供給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投資와 技

術의 有力한 提供國이기도 합니다. 또한 韓國은 우리들의 아홉번째로 큰 交易相對國이며 우리들의 貿易은 증대 일로에 있습니다.

韓國의 급속한 발전은 1960年代 및 1970年代를 특징지었던 自由貿易에 크게 힘 입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保護主義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韓國에 대해 여러분이 누렸던 발전이 복잡한 規制的 行動으로 위태롭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은 保護主義의 압력을 물리치는 데 美國과 合勢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듯이 安保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매우 분명하게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즉 韓國國民들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美國은 여러분의 친구이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금년은 韓·美 兩國間의 相互防衛條約 체결 30周年이 되는 해입니다.

이 條約의 序文은 침략에 대항하고 太平洋地域에서 平和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兩國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條約을 계속 확고하게 준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韓半島의 平和를 추구합니다.

그 때문에 美軍 兵士들이 貴國의 非武裝地帶를 따라 韓國 兵士들과 어깨를 나란히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美軍 兵士들은 貴國의 安保와 이 地域의 安保에 대한 美國의 公約을 상징합니다. 美國은 우리가 유럽 및 세계 각지에서 우리들의 盟邦을 지지하고 있듯이 똑 같이 貴國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특히 韓國에서, 우리는 힘의 부족이 가져오는 쓰라린 결과를 배웠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이 곳에서 불과 몇「마일」 떨어진 곳에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공갈 협박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약 50個의 사단과 여단들, 750대의 전투비행기를 거느리고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北韓은 전쟁준비를 위해 非武裝地帶內에 땅굴을 뚫었습니다. 이들은 紛爭만을 노리며 때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랭군」에서 여러분

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그와 같은 北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發展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더이상 警戒가 필요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美國은 南·北韓間의 對決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의 신념을 같이 합니다. 北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韓半島의 平和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韓國은 오늘날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分斷된 國家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분단된 국가로 머물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統一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0年 후에 平和적으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獨逸은 分斷 상태로 머물어 있습니다만 그 분단의 고통의 약간은 10年前에 이루어진 兩獨間의 協定으로 가셔졌습니다. 본인은 韓國國民들도 역시 和解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和解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韓半島의 國民들이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믿으며, 對話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이 쏟아 온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美國으로서는 자주 강조해 온 바처럼 大韓民國이 동등하게 代表로 참석하는 그 어떠한 討論場에서 이루어지는 北韓과의 討議에도 기꺼이 참석할 것입니다. 前進의 필수적인 길은 南·北韓 사이의 직접 대화입니다.

美國人들은 戰爭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려는 여러분의 운동을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심정으로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兩親이 목숨을 잃는 즉시 서로 헤어진 姊妹의 이야기, 전쟁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버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가족의 生死도 알지 못한 채 나이를 먹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인은 北韓에게 지금이야말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이며 이 「프로그램」에 그들의 국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합니다.

南韓과의 정치적 차이가 어떠한 南北의 무고한 이산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해서 해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과 국민들의 완전한 재결합은 가장 기본적인 人權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美國은 大韓民國과 마찬가지로 韓半島에 2個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또 그들 국가 및 그들의 盟邦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락될 경우 誤算의 위험을 줄이고 韓半島에서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조치들을 지난 2年間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해 왔습니다. 軍事演習에 관한 상호 통고 및 상호 관측과 같은 우리의 제안들은 유럽에서 協商되어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조치들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기본적인 政治問題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重武裝된 이 韓半島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韓半島에는 1950年 6월에 비해 數倍나 더 많은 武裝軍隊와 또 엄청나게 더 많은 火力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침략을 억지하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유지 하기 위한 경제심과 힘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렸읍니다만 그러나 힘의 또 다른 源泉이 있는데 그것만은 이 國會내에 잘 대표되어 있습니다. 民主政治制度의 계속적인 발전은 진정한 安保의 기초가 되는 國民總和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北으로부터 발사된 砲彈 하나로 이 國會가 파괴당할 수 있는 이 때에 政治的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美國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적이 계속 귀국민의 生活水準을 높여 나갈 수 있게끔 平和를 유지해 나가는 일의 복잡성을 本人의 國家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貴國이 政治的 발전과 人權尊重의 向上을 위해 설정한

목표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1988年의 合憲的인 정권이양을 위한 全大統領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합니다. 韓國의 政治生活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우리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北으로부터의 威脅이 尙存하기 때문에 간단한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귀국이 政治發展을 위해 대담하고도 필요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할 때 美國은 확고한 지지를 보낼 것이고 또 도처의 民主國民들이 많은 찬사를 보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1百年前 貴國은 당시의 美國人 使節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알려주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대답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랜 소중한 盟邦인 귀국의 平和와 繁榮과 自由입니다.

몇주전 「워싱턴」에서는 007便 機內에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낭독되었는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전체 인간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쪼먹는 오만함과 미워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갈라 놓는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유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등과 혼란을 무릅쓰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룩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여 늦기 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화목한 가운데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